

55~66세 소득공백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50세를 전후해서 조기퇴직하는 직장인도 많다. 이에 반해 지금은 60세로 되어있는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2013년 부터는 매 5년씩 1살씩 늦춰질 예정이다.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을 한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때까지의 소득공백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시기에는, 직장을 떠나 소득은 줄었는데도,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병원비, 노부모 부양자금 등으로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만약, 실패라도 하는 날이면 현역시절의 중산층에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조급증을 견디지 못해 성급한 선택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해서 다소라도 근로소득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재취업 노력은 노력대로 하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때까지의 소득공백기간을 일정 부분 메워줄 수 있는 징검다리 소득원이 필요하다. 현역시절에 준비해둔 징검다리 소득으로 매달 생활비의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재취업하거나,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창업을 해서, 성급한 선택에서 생기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소득공백기에 대비한 금융상품

소득공백기를 메워줄 소득원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 또는 연금펀드이다. 현역시절에 연금저축을 10년이상 납입한 투자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백기 징검다리 금융상품으로 제격이다. 또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반 강제적으로 장기투자를 하게 되는 메리트도 있다.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또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 연금으로 적합하다.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메리트도 있다.

어느 정도의 목돈을 가진 분이라면 즉시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즉시연금이라는 목돈을 맡겨 두고 매달 일정한 금액씩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연금수령방법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받는 「**확정연금형**」, 원금은 지키면서 이자만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상속 연금형**」, 정해진 만기가 없이 살아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종신 연금형**」이 있다. 이 중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수령방법을 택하면 되는 것이다.

매월 지급식 펀드 또한, 즉시연금과 마찬가지로, 목돈을 맡겨두고 매월 분배금을 받는 상품이다. 두 상품에 다른 점이 있다면, 즉시연금은 금리형 상품에 주로 운용하는 반면, 월지급식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앞에 소개한 금융상품 중에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상품을 골라, 소득공백기에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소득공백기에 재취업으로 대응하려면?

소득공백기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해 두어야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역시 재취업이다. 소득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나 100세 시대의 보람있는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같이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재취업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재취업을 하려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특기이다. 고령 세대를 채용하려는 회사들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보다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필자도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아는 회사에 부탁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 주특기는요? 우리회사에서는 인사부에서 노조담당 10년 이상 경험자가 필요한데... 이런 식의 질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물론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능력만이 아니고 사소하게 생각되는 능력이라도 남다른 점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주특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만의 주특기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내세울 만한 주특기가 없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취업자리를 알아보기 전에 주특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재교육부터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재취업한 후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다. 우선,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는 전 직장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아졌다고 해서 실망을 해서 안될 것이다.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전 직장에서 연공서열에 따라 공헌도 이상으로 받았던 '지불 초과분'을 못 받게 된 결과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재취업한 직장을 전 직장과 함부로 비교해서 비하시키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큰 조직에서 근무하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게 되면 그 회사의 시스템이나 시설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큰 조직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는데, 작은 회사에서는 심한 경우 화장실 청소도 이르기까지 이런 저런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조직의 시스템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효율성 면에서 대기업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전 직장과 함부로 비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사소한 비용이라도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고 지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가족경영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오너들이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는 당연하게 지불하는 경비까지도 아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큰 조직에 근무하다 재취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물질 모르고 낭비한다, 는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젊은 후배들에게 경쟁자가 아니라 조언자로 비치도록 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후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자신의 인맥이나 경험을 통해 해결해주면 고마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경계의 눈초리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 무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소리 없이 도와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자료작성 같은 사소한 일까지도 스스로 해결해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비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